



흡연의 경제적 손실과 흡연 규제

김미화 연구원

2012년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전 세계 GDP의 1.8%에 이르며,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2030년까지 연간 8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. 고소득 국가의 흡연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중·저소득 국가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향후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경제적 손실이 중·저소득 국가로 집중될 가능성이 큼. 이에 WHO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예방하고 경제적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담배규제기본협약의 MPOWER 정책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음.

■ 흡연으로 인한 세계경제 잠정 손실은 2012년 연간 1조 4천억 달러로 이는 전 세계 GDP의 1.8%에 이르며,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2030년까지 연간 8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.¹⁾

- 흡연으로 인한 직접 비용(질병치료 비용 등)은 4,220억 달러로 세계 보건지출의 5.7% 수준이고, 생산성 손실 및 조기 사망 등으로 인한 간접비용은 무려 1조 달러에 달함.
-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약 600만 명에 이르며, 2030년에는 약 800만 명으로 1.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
■ 특히, 고소득 국가의 흡연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중·저소득 국가²⁾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- 2000~2013년 사이에 고소득 국가의 흡연자는 3억 5백만 명에서 2억 6천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, 2025년까지 2억 2천 1백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- 반면, 중·저소득 국가의 흡연자는 증가 추세로 2000년 8천만 명에서 2025년 1억 1천 4백만 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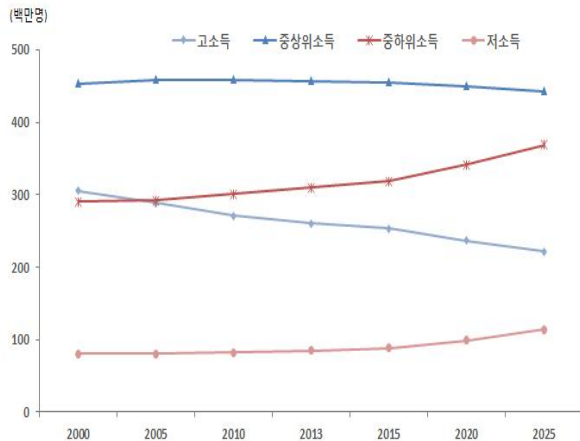
1) WHO(2017), The Economics of Tobacco and Tobacco Control .

2) 세계은행의 국가 분류 기준에 따라, 저소득 국가는 2014년 기준 1인당 GNI가 1,045달러 이하인 국가이며, 중소득 국가는 중하위 소득국가(1인당 GNI 1,046~4,125달러)와 중상위 소득국가(1인당 GNI 4,126~12,735달러)로 나누어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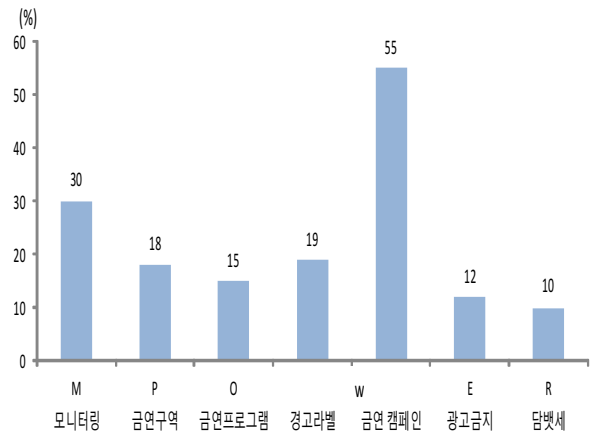
으로 증가할 전망이다.

- 2012년 기준 중·저소득 국가의 흡연비용은 전 세계 흡연 비용의 약 40%를 차지하고 있음.
- 2030년에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중 80% 이상이 중·저소득 국가 국민일 것으로 전망됨.

〈그림 1〉 국가 소득수준별 흡연인구 추이



〈그림 2〉 MPOWER 정책 수혜대상 인구비중(2014년)



자료: WHO(2017), “The Economics of Tobacco and Tobacco Control” .

■ WHO 담배규제기본협약³⁾은 흡연을 감소에 효과적인 6가지 실행규칙(MPOWER)⁴⁾을 선정하여 각국의 흡연규제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나, 최고 수준⁵⁾의 담배규제를 받는 인구는 일부에 불과함(그림 2) 참조).

- 흡연실태 및 금연 정책 모니터링(M)은 담배규제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정책의 이행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이나, 모니터링의 대상인구 비중은 2012년 40%에서 2014년 30%로 감소하였음.
- 금연구역 지정(P)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는 인구는 전체의 18%이며,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제공(O)받는 인구는 15% 수준임.
- 건강경고 부착(W)은 흡연의 위험성을 알려 담배소비 감소에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정책은 중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19%가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음.
 - 전 세계 국가의 약 36%가 건강경고 부착 관련 방침을 실행하지 않거나 담뱃갑 크기의 30% 이

3) FCTC(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).

4) MPOWER는 WHO의 FCTC 조항 가운데 핵심 조치 여섯 가지를 선정한 것으로 M(흡연실태 및 금연정책 모니터링), P(담배연기와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), O(금연지원 프로그램 제공), W(흡연의 위험성 경고), E(담배회사의 광고, 판촉, 후원활동 규제), R(담뱃세 인상)로 구성됨.

5) 최고 수준은 각 정책별로 MPOWER가 요구하는 세부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이행함을 의미함.

하를 차지하는 소형 경고라벨 부착을 권고하는 실정임.

- 담뱃세 인상(R)은 MPOWER 중에서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이거나, 대상인구 비중은 10%로 가장 낮은 수준임.
 - 이는 담배가격의 75% 이상을 세금으로 책정하고 있는 국가가 2014년 기준 33개국에 불과하기 때문임.

■ WHO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예방하고 경제적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MPOWER 정책을 충분히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.

- WHO 보고서에 따르면, 2007~2010년간 41개 국가에서 시행된 MPOWER 정책으로 인해 2050년까지 약 750만 명의 조기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됨.
 - 또한 담배 가격이 두 배로 인상 될 경우, 2030년에 흡연율이 22.0%에서 13.2%로 하락하여 흡연자 수가 약 3억 5천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.
- 또한, 향후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경제적 손실이 중·저소득 국가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 국가들은 MPOWER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. [kiri](#)